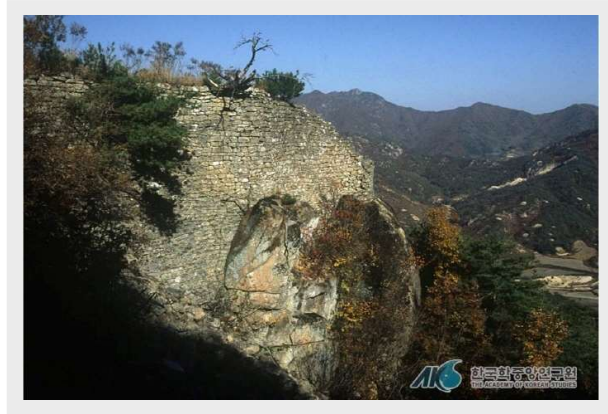


후백제의 건국 신라의 장군이 옛 백제 땅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다

900



견훤산성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개요

후백제는 통일 신라 말 신라 군인 출신 견훤(甄萱)이 옛 백제 지역에 건국한 나라이다. 9세기 말 후고구려(이후 고려)-신라와 함께 후삼국시대를 열었으며, 후백제가 멸망하며 후삼국시대도 막을 내렸다. 후백제는 신라를 타도하고 백제를 계승하는 새로운 사회를 표방하며 건국된 나라였다. 하지만 국가의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그 기반이 신라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건국 시기부터 국가 운영체제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밝혀진 게 많지 않다.

2 후백제의 건국 시기 : 사료 기록상의 시점과 실제 사건의 시차

통일신라 말, 신라 조정의 통제가 약화 되자 각지에서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이 세력을 형성하여 신라 조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였다. 견훤 역시 그중 하나였다. 견훤은 상주 호족 출신의 신라 무장으로 군대에서 함께 한 부하들과 함께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때문에 당시 여러 세력 중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 후백제-고려-신라 간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견훤의 후백제의 전력이 우세했던 것 같다.

이처럼 후삼국 초반의 정세를 주도했던 후백제이지만,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 후백제의 국가 체계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사료에 보이는 후백제의 건국 시점도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서술 특성상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견훤전에 따르면, 견훤이 신라의 장군일 당시 신라 조정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관심이 없고, 지배층은 사치향락에 빠져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다. 거기에 기근까지 들어 백성들은 떠돌아다니고 각지에 도적들이 발호하였다고 한다. 이때 견훤은 이미 신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 신라에 반기를 들게 된다. 견훤이 반기를 들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약 보름 만에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 당시 견훤의 결단을 반기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관련사료** 이후 견훤은 무진주(武珍州 : 지금의 광주광역시)를 차지하고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이 시점까지는 감히 공식적으로 왕이라 칭하지는 못하고 다만